

천은자

본회회원,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
전공 교수

캐나다와 미국의 기독교 학교 방문기

1. 여행계획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우리 일행이 캐나다와 미국의 기독교 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것은 그저 하찮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작년 11월경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Wesley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그가 미국의 기독교 학교를 둘러보고 오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안식년을 앞두고 있던 나는 마음과 시간이 여유로운 상태라 오랜만에 여행도 해 보고 싶었고, 마침 우리 기독교 유아교육 연구회에서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을 써보기로 계획을 하고 있던 차라 Wesley 선생님께 가 볼 만한 학교를 몇 군데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

마침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CSI(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북미의 기독교 학교 조직)의 주소록에 기록된 기독교 학교들을 지도에 놓고 의논하는데 Canada의 Vancouver 지역과 미국의 Seattle에 위치한 기독교 학교가 왠지 마음에 들었다. 아마도 그 지역에는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서 짧은 시간 내에 여러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한국에서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이라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Wesley 선생님께는 밝히지 못한 더 큰 이유가 있었으니 몇 년전, Seattle에서의 잠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를 본 후부터 나는 그 낭만적인 도시에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 영상매체의 힘이란 얼마나 큰 것인가.

나는 이러한 여행 계획을 우리 연구회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갈 사람을 모집했다. 그래서 총신대의 정희영 교수와 하예성 어린이 집의 김학영 원장이 합류하기로 하였다. 여행 일정은 대충 1월 중순에서 하순까지로 잡았고 캐나다와 미국의 기독교 학교와의 연락과 스케줄 조정은 당연히 Wesley 선생님의 몫이 되었다.

먼저 Canada의 SCSBC(Society of Christian School in British Columbia)의 John Vanderhock로부터 그곳의 Langley와 Vancouver Christian School을 1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고, Seattle의 Bellevue Christian School의 superintendent인 Dr. Chuck Pasma는 1월 27일부터 31까지의 Seattle방문 일정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다루고 싶은 discussion question을 적어 보내왔으며 우리에게도 관심 있는 영역과 질문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우리는 Wesley 선생님의 열의와 그들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인해 2주간의 짧은 일정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2. Vancouver로 출발

드디어 1997년 1월 20일, 우리는 서울을 출발하여 그 곳 시간으로 역시 20일 저녁에 Vancouver에 도착했다. Vancouver 공항에는 UBC에 교환교수로 와 계시는 한림대학교의 안동규 선생님이 파란 윗도리와 모자를 쓰고 우리를 마중 나와 계시기로 되어 있었다.

집을 찾지 못해 한참 애를 쓰다 할 수 없이 집 분실 신고를 하고 나와 안교수님을 찾아보았다. 역시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세 명의 한국 여자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안교수님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인가 싶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려다 아무래도 느낌이 심상치 않아 가까이 다가가 통성명하게 되었다. 초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분이 그 분 밖에 없었으므로 염치 불구하고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댁에 가서 사모님이 손수 차리신 훌륭한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교수님으로부터 IVP와 기학연의 활동에 대해 많은 설명을 들었다.

Vancouver에 도착한 날이 주일이었으므로 그날 밤은 시내의 Holiday Inn에 가서 자고 월요일 오전에 첫번째 방문지인 Langley로 옮겼다. Vancouver에서의 일정은 월, 화는 Langley Christian School을, 수, 목에는 Vancouver Christian School을 방문하고, 금요일 점심에 Vanderhoek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3. Langley Christian School

Langley Christian School은 Vancouver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Langley라는 평화롭고 한가해 보이는 작은 도시에 있었다. Campus가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 곳은 유치원부터 5학년 학급까지 있는 Campus였다. 모두 35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건물은 1층으로 아담하였다. 길에서 보기에 이곳이 기독교 학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는 학교 간판밖에 없었다.

서울에 그 학교 소개를 보내온 바 있는 Mrs. Bomhof가 나와 우리를 반겼다. 그녀는 학교에서 curriculum coordinator이자 librarian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마침 월요일마다 있는 교사들의 기도시간이라 우리는 각자 자기 소개를 하고 그들과 함께 짧은 성경 말씀도

나누고 남편이 불치의 병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교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였다. 그 방의 가운데에 놓여있는 탁자에는 케이크와 쿠키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 가정을 위해 교사들이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라 했다.

Mrs. Bomhof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문학작품을 기초로 한 총체적 언어접근법과, 통합된 주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된 점이라고 소개하였다. 통합 주제는 창조, 문화, 기타의 세 영역에서 고르게 선정되는데, 창조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뜻하며 여기에는 동식물, 무생물, 우주 등이 포함된다. 문화는 사회, 예술, 인류학과 같은 인간에 관련한 학문을 뜻하며, 기타로는 주로 문학을 들었다.

교사들이 주제 선정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며, 보통 일년에 한 학급당 10-12개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

교과서보다 아동도서를 더 중요한 교육자료로 하고 있는 만큼 도서실과 사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도서실의 공간적 위치에도 반영된 듯, 도서실은 학교 건물을 들어서자마자 오른편 큰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서실의 책들은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학생의 연령에 맞는 것들로서 우리가 이후에 방문한 다른 학교들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하였다.

Mrs. Bomhof는 이곳에서 책을 구입하고 보관, 분류하며, 학급단위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대여해 주는 등의 사서의 역할 뿐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단원을 계획하고, 그 단원에 필요한 교사와 학생의 도서를 공급해 주고 교사들에게 study skill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그녀에게는 전자의 사서의 역할보다 후자의 curriculum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였다. 그러나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조력자로서의 역할이지 교사를 감독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만큼 교사의 자율성은 존중되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의 전공 영역이 유아교육이므로, 우리는 학교를 둘러본 후

주로 유치원 교실에서 참관을 하였다. Langley 학교의 유치원 학급은 두 개였는데 마침 우리말로 번역된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의 저자인 Dr. Harro Van Brummelen의 부인인 Mrs. Wilma Van Brummelen이 한 학급을 맡고 있었다. 그녀는 마른 몸매와 날카로운 인상의 소유자로서 50대 중반정도로 보였는데 유치원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고 있었다. 나중에 그녀가 자신은 이제껏 고학년을 맡아 왔고 유치원 학급은 작년 부터 처음인데 제일 재미있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저으기 놀랐다.

그 반의 하루 일정은 아침 9시의 기도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야기 나누기, 자유놀이, 간식, show and tell(물건 하나씩 가져와서 보여주며 말하기), 바깥놀이, 노래하기, 패턴 학습하기, 그리고 12시에 귀가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노래 배우는 시간의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노랫말은 잘 생각나지 않으나 운이 명확하여 부르기 쉽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곡조였던 것 같다.

Mrs. Van Brummelen은 우리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만든 일년의 교육 계획안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계획안에는 96-97년의 연간 단원 계획이 Dr. Van Brummelen이 그의 책에서 제시한 대로 단원명, 주제진술, 목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단원명은 96년 9월부터 97년 6월까지의 것으로 창조, 추수,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소나무, 겨울/크리스마스, 교통, 성축절(groundhog day), Valentine day, 일본, 농장, 꿀벌/곰, 물 등 12개였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제시된 주제진술과 목표는 기독교인의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교통이란 단원의 주제진술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VI. Transportation

Jan. 6-Jan. 31, 1997

Field trip: Both classes, all day to Lonsdale, Quay, North
Vancouver

Thematic Statement:

God, at creation, commanded people to look after the four realms (humans, animals, plants, and physical things). He had created for their use. And it was very good. After sin came into the world, this became more difficult to do because our focus shifted toward our own needs and wants. But Jesus died for our sins so that we may again focus our vision on God's laws rather than our own wants. Therefore, transportation can be used for His glory rather than ours.

In this world, people must invent ways of looking after God's creation. We need ways of transporting people, animals, plants, and things from one place to another. People have to use vehicles in God-praising, responsible ways so that God's world will not be polluted any further. Above all, people must use vehicles for service to God and neighbors in order to praise Him for all His goodness. In this way God allows us to enjoy His world to the fullest just as He intended.

'교통'이란 우리 나라의 어느 유치원에서나 일년에 한 번은 꼭 다루어지는 보편적인 주제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Mrs. Van Brummelen은 그 주제를 기독교 세계관의 틀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기초로 진술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도구로서의 교통기관의 쓰임에 그 초점이 모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외에도 다른 교육 프로그램 자료들을 주었는데, 그것을 보며 나는 Dr. Van Brummelen의 저서가 과연 혼자만의 작품일까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Mrs. Van Brummelen에게 물어 보았더니 부부가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만 대답하였다.

Langley School에서 가까운 곳에 마침 Trinity Western University와 그 대학 건물 안에 SCBCS의 사무실이 있다 하여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어 찾아가 보았다. 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는데 운전사가 중동인 같아 보였다. 택시도 낡아 불안한 데다가 나의 못된 인종적 편견까지 고개를 들어 가는 내내 바짝 긴장을 하였다. 도착하여 지폐를 주고 잔돈을 받는데 팁을 제하고도 지폐 몇 장은 거슬러 받아야 할 것 같았는데 동전 몇 개만 건네주고는 행하니 달아나 버린다. 역시 당했구나 싶지만 얼마 안되는 돈 포기하고 말자하고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가 준 동전을 다시 들여다보니 동전 한 개가 캐나다 돈 2불 짜리였다. 캐나다에 2불 짜리 동전이 있는 줄을 그 때까지 몰랐다. 편견과 무지로 인해 괜한 사람을 의심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다. 양심의 찢림을 받았다. 곧 하나님께 회개했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에 온 김에 그 대학 교수인 Dr. Van Brummelen을 만나려 했으나 약속이 되지 않아 보지 못하였고, SCBC에 들렀더니 여러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이 보내온 유아교육 활동 자료를 몇 가지 복사해 주어 가지고 왔다. 부러웠던 점은 SCBS에는 기독교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세 명이나 있다는 점이다. 그 중 한 명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는 언제쯤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을까 부럽기만 하였다.

Langley에 있을 때는 Dolley Neufeld라는 캐나다인 아가씨 집에서 home staying하였다. 부모가 모두 카리브해 지역으로 사업차 떠나고 결혼 안한 이모 Revita와 함께 멋진 저택을 지키며 근처의 작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가씨인데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에도 몇 번 참여한 적이 있다며 그 때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가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한 것을 알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짐을 찾아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을 써 준 착한 아가씨였다. 식사는 주로 Revita가 준비해 주었는데 집안의 장식물을 만드는 솜씨가 아주 좋았다. 만일 결혼한다면 아주 좋은 주부가 되겠다고 칭찬하니 바로 그 만일(If)이 어려운 것이라 했다. 좋은 남자들은 모두 이미 여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Vancouver Christian School

두번째 방문지인 Vancouver Christian School은 Vancouver 시내에 있었다. 안선생님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자 교장인 Mr. Ronald Donkersloot가 기다리고 있었다. 매우 활력이 넘쳐 보이고 쾌활한 인상의 소유자였는데 나중에 그분이 학생들에게 성경과 수영을 가르친다고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이 학교는 K부터 10학년까지 한 건물에 있어 Langley와 비교해서는 좀 복잡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나 둘째 날에는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그런 데로 질서가 잡혀 보였다. 그리고 그 곳을 방문하는 동안 공항에서 우리 짐을 찾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다.

이 곳의 교육철학이나 교사의 배경, 재정문제 등은 Langley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Langley School과 같이 SCSBC에 속해 있으며, 교사는 교파는 달라도 모두 기독교인이고,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기독교 학교 교육에 관한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다. 재정은 정부에서 50%, 학부모로부터 50%지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학생의 가정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으나, 비기독교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Christian School이 학생의 품행 등 평판이 좋아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선교 목적으로 입학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기독교 학교로서의 특징은 아침의 기도시간과 교육과정, 학교의 복도와 교실 안에 붙여 있는 성경 귀절, 성경 공부 시간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도서실에도 성경의 이야기나 내용을 다룬 좋은 책들이 따로 분류되어 찾기 좋게 되어 있었다. 이 학교의 도서실이나 사서의 역할은 Langley와 같이 강조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동 도서를 소유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도서실 이용을 활발히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학교에도 유치원이 두 학급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학급의 여교사 모두 중국계라는 점이다. 그리고 유치원 원아들도 70-80%가 동양계였다. 안 교수님이 Vancouver는 동양인, 특히 홍콩인의 유입이 많아서 벤

쿠버 대신 홍쿠버라고 불린다고 했던 것이 과장이 아님을 실감하였다. 유치원 교실을 참관하면서 상당히 3R's(Reading, Writing, Arithmetic)를 강조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어, 100단위의 수세기를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 병 안의 chip의 수를 추측하기, 9월에 개학해서 지금까지 며칠 지났나 세어보기, 연습지로 읽기, 쓰기를 연습하기, pattern 연습하기가 하루 일과 안에 들어 있었다. 그전에 Mr. Donkersloot가 그 학교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를 자랑스레 언급했던 일을 기억해 내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신앙과 더불어 학업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Vancouver Christian School에서 이틀을 보내고 금요일 낮에 SCSBC의 세 분의 Education Coordinator 중의 한 분이신 Mr. John Vanderhoek를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onference Center에서 만나 점심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Vancouver에 와서 우리는 안교수님이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신 그곳에서 묵고 있었던 것이다. Mr. Vanderhoek는 바로 우리가 방문한 학교들과 협의하여 방문 일정을 Wesley 선생님께 보내온 분이였다. 학생으로 가득찬 떠들썩한 학생 식당에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과 기독교 학교의 교육과정, 우리 나라 기독교 학교의 현황에 대해 묻고 대답하였다.

금요일에는 모처럼 시간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Vancouver 시내구경도 하고, UBC 서점에 가서 책도 샀다.

5. Bellevue Christian School

토요일 아침, 우리는 Seattle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 역에 가서 그레이하운드를 탔다. 왼편으로 눈 덮인 Cascade 산맥의 절경을 바라보며 오른쪽에는 태평양 바다를 끼고 5시간 정도 내려가니 Seattle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흥집사님이 마중 나와 계셨다. 그 분은 미국에 이민 오셔서 Seattle

에서 조금 떨어진 Bellevue시에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자진하여 숙소를 제공해 주셨던 것이다.

1월 25일부터 30일까지의 우리의 Bellevue Christian School 방문 일정은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다. Bellevue Christian School은 Dr. Al Greene께서 1950년에 설립하신 학교로서 Junior/Senior High Campus, Three Points Elementary Campus, Westminster Preschool Campus, Mack Elementary Campus, New Mack Elementary Campus, Woodinville Preschool Campus 등 6 개의 Campus로 이루어져 있다.

BCS의 주소록 첫장에는 학교의 mission statement가 큰 활자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리의 목표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기초로 하여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개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첫날 방문지인 Three Points Elementary School은 K-6학년까지 있었으며 학습지진아를 위한 특별교실과 시설이 잘 갖추어진 체육실, 음악실 등이 방사선 모양의 학교 건물 안에 들어 차 있었다. 교장인 Mr. Al Blomquist는 총체적 언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총체적 언어와 발음중심교수법(Phonics)을 절충하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저학년 학급에 들어가 보니 마침 'Explode the Code' 라는 Phonics 교재를 사용하여 읽기, 쓰기를 학습하고 있었다.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는 학부모인 듯 싶은 보조교사가 학생을 한 명씩 데리고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초가 되어 있는가와 더불어 교실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타나는가를 보기를 원했다. 그러한 장면은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의 기도,

성경 이야기, 성경 내용의 노래 부르기, 고학년이 저학년의 학습을 도와줌으로써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것, 학생의 미술 작품, 교실 안과 밖의 게시물 등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교실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니까에 제시된 것처럼 한 개의 통합된 주제 안에 언어, 사회, 수학, 과학 등의 교과 지식의 지식이 녹아 들어가는 학습 상황은 충분히 관찰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부족하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Superintendent인 Dr. Chuck Pasma를 비롯하여 BCS의 여러 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여러모로 신경을 써 주셨다. 우선 학교의 밴 한대를 내 주어 우리가 오고 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었고 여러 종류의 모임과 파티를 준비하였다.

방문 이틀째 날에는 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환영 파티를 열어 주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인 학부모들과 여러 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 Mr. Stefan Ulstein이라는 10학년 영어 교사와 나눈 시간이 특히 유익했다. 그는 영문학과 Communication을 전공하였으며 문학과 영상매체에 조예가 깊었다. 학급에서 실존주의나 자연주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문학작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스 신화와 같이 다신이 등장하는 전통문학을 저학년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 학교 교육의 효과를 묻는 내게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영향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졸업한 후의 진로 선택이나 삶의 방향을 볼 때 신앙과 삶이 통합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르친 몇몇 졸업생들의 예를 들려주었다. 그 다음날 그는 내게 IVP에서 출판한, 자신의 책 *Growing up fundamentalist*를 가져다 주었다. 언젠가 읽으려고 내 방 책꽂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꽂아 놓았는데 아직 한 줄도 읽지 못하였다.

또한 Dr. Pasma는 나의 연구 영역이 아동문학인 점을 감안하여 세 캠퍼스의 사서들과의 모임도 마련해 주었다. 그들이 준비해 온 몇 권의 성경 그림책들을 들춰보다가 모두 같이 근처 기독교 서점의 어린이 책 코너에

우르르 물려가서 그들이 추천하는 책을 한 보따리 사기도 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Seattle을 떠나기 전날에는 각 캠퍼스의 교장 세 분과 Dr. Pasma, Dr. Greene과 약간은 공식적인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Dr. Pasma가 미리 서울에 FAX로 보내준 discussion question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로 그 질문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학교의 뚜렷한 특징은 무엇인가?
- (2)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
- (3) 우리는 서로의 문화 경험을 나누고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달시킬 수 있겠는가?
- (4)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학교는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겠는가?
- (5) 우리가 논의해야 할 교육과정의 Issue가 있는가?

우리 모임에서 기독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급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이나 그때만 해도 우리는 겨우 Alta Vista College에서 개발된 기독교 교육과정인 Alta Vista Curriculum을 같이 공부하면서 기독교 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대충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방문 중 보고 느낀 점을 말하고, 궁금한 점들을 묻고, 한국의 기독교 교육 현황과 기독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모임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리고 교사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그곳의 교사교육 Conference에 참여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에 그곳 교수나 교사들이 연사로서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Seattle을 떠나는 시간이 목요일 늦은 밤이었으므로, 오전에 Alta Vista College를 들러서 Dr. Al Greene과 Alta Vista Curriculum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curriculum director이자 Covenant

Christian School의 주임교사인 Elaine Brouwer를 만났다. 그들로부터 curriculum의 개발 과정에 대해 듣고 그 곳에서 출판된 책을 몇 권 샀다.

이렇게 하여 숨쉴 틈 없이 바빴던 4일간의 BCS 방문을 마치게 되었다. 그 기간 중 가장 고마웠던 분은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그곳에 머무는 6일 동안 매일같이 메뉴를 바꿔가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홍선생님 내외분이다. 안주인 되시는 윤경희 집사님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윤완철 교수님의 누님이신데 연세보다 훨씬 젊게 보이고 매력적이실 뿐만 아니라 주부의 역할을 빈틈없이 해내고 계셨다. 가정 관리와 요리, 교회일에 이르기까지 그 분으로부터 배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남매인 자녀들은 BCS의 중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뛰어난 학생들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세 사람 모두 그 분의 모습을 며칠 동안 보면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대했던 우리의 남편과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6. 집으로 돌아오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2년 전에 기독교 유아교육 연구회라는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우리를 이 먼 곳 Vancouver와 Seattle의 기독교 학교의 방문길로 이끄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생김 모습과 언어, 문화는 달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진리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신앙과 교육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그들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통하게 하신 것에 감사드렸다.

또한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다. Wesley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안교수님, Molly, Revita, 홍선생님 내외분, ...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생면부지였던 그 분들께 우리는 너무도 큰 빛을 지고 돌아왔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수

64 캐나다와 미국의 기독교 학교 방문기

고를 더 크게 갇아 주시리라 믿는다. 88